

LG화학, PDP필터 시장공략 본격화

월 6만매 생산 2004년 300억원 매출목표 ... 편광판 이어 일본과 경쟁

LG화학(대표 노기호)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PDP(Plasma Display Panel) TV의 핵심소재인 PDP필터에 대한 독자적인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섰다.

LG화학은 9월13일 공시를 통해 충북 오창에 위치한 오창테크노파크에 월 6만매 규모의 PDP필터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PDP필터는 PDP TV에 장착해 선명한 색을 구현하고 근적외선 및 전자파를 차단해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핵심 소재로 2004년 세계 시장규모는 5700억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50% 이상 고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2004년 말까지 PDP필터 생산규모를 국내 최대인 15만매로 증설하고 세계시장의 20%를 차지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PDP필터 시장은 일본의 Asahi Glass, Mitsui Chemicals 등 일본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LG화학은 2차전지와 편광판에 이어 PDP필터 시장 석권을 위해 일본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는 “편광판 생산을 통해 축적한 정밀코팅 기술, 박막필름 가공기술과 더불어 독자적인 광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조기에 PDP필터 양산이 가능했으며, 국내는 물론 유럽, 일본, 타이완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08년 세계시장 35%를 점유하면서 PDP필터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PDP는 흔히 벽걸이 TV로 불리는 미래형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로서, 다양한 입력신호와 연결돼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보다 밝고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미래형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다.

특히, 40인치 이상 대형화면을 10cm 이하의 얇은 두께로 구현할 수 있는데, PDP 필터는 PDP 모듈의 외부에 부착해 광학특성을 향상시키고 근적외선 및 전자파 차폐기능을 갖는다. PDP필터의 두께는 42인치를 기준으로 3.6mm 수준이다.

<화학저널 2004/09/14>